

봄의 향연! 남도 축제와 함께

▲순천 낙안민속축제=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순천 낙안민속문화축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순천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펼쳐진다. 임경업장군(군수) 부임 행렬, 전통의 향연이란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낙안큰줄다리기, 닭놀이 민속공연, 수문장 교대의식, 햇불들고 성곽돌기 등의 행사가 마련돼 있으며 옥사마당, 관아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조선시대로의 여행을 안내한다. 문의 (061-749-3347).

▲여수 거북선축제=10일부터 14일까지 여수시내 일원과 해양공원에서 범국민적 축제로 열린다.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출정식을 재현한 전국 최대 규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세계불꽃축제가 1시간여 동안 여수 앞바다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게 된다. 한·중·일 음식축제,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KBS 열린음악회, 블루페스티벌, 동백가요제 등 체험형 축제로 진행된다. 문의 (061-690-2287).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오는 17일부터

4월에도 전남지역에서 각종 축제가 줄을 잇는다.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3일까지 일정으로 왕인박사 유적지 일원에서 열리고 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여수거북선축제가 열리는 등 남도의 향기 가득한 축제들이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열린다.

순천 낙안읍성·여수 거북선·화순 고인돌 축제 등 가족과 함께 하는 역사 문화 탐방·체험 행사 다채

19일까지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의신면 모도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한국판 모세의 기적'으로 알려진 신비의 바닷길 현장 체험과 송어·조개잡이 개매기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과 진도민요, 강강술래, 남도노래와 같은 국악의 향연도 펼쳐진다. 신비의 바닷길 체험은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가능하다. 문의 (061-540-3225).

▲구례 지리산남악제=20~22일까지 구례 화엄사 지구에서 열린다.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 전수농악 발표회,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 동편제 판소리 체험장 등 문화예술 행사 중심으로 진행된다. 문의 (061-780-2431).

▲화순 고인돌축제=전남 유일의 세계문화유산인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와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공원에서 26~29일까지 열



4월에도 여수 거북선축제를 비롯해 전남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개막된 왕인문화축제에서 재현된 왕인박사의 일본 행렬 퍼레이드 광경. /영암=김현민기자 hnkim@

린다. 고인돌 축조 재현 행사와 솥대만들기, 움집만들기 등 선사시대의 삶을 체험하는 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또 원시사냥체험, 원시어로체험 마당도 마련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즐거

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문의 (061-370-1227)

▲담양 대나무축제=담양 추성경시장과 관방제림, 구 죽물시장, 죽녹원 등 문화공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

는 거리카니발이 새롭게 선보이고 뗏목타기, 수상자전거타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로 꾸며진다. 오는 29일 개막돼 5월5일까지 열린다. 문의 (061-380-3151).

/홍행기기자 redplane@

전/북/소/식

낙도에 전깃불 켜졌다

완도 어룡도 '내연발전소' 준공
240kW 전력 공급 주민들 '환호'

낙도 오지인 완도군 노화읍 어룡도에 전기가 공급됐다. 지난달 29일 어룡도에서는 김종식 완도군수와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룡도 전화(電化)사업인 '내연발전소 준공식'이 열렸다. (사진)

이날 준공된 내연발전소는 27억원을 들여 섬 내에 배전선로를 깔고 발전기 3대를 설치, 240kW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 마을 이강복 이장은 "50년 넘게 살아 오면서 이제야 전기를 맡겨 써 보는 꿈을 이루게 됐다"면서 "이제 어룡도도 24시간 전기가 공급돼 전북 양식과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하게 되는 등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기쁨을



김추지 못했다. 김 군수는 "그 동안 큰 섬을 대상으로 전화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작은 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전기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만큼 많은 도로서 주민들이 충분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어룡도는 해남군 송지면 땅끝 앞 위치한 섬으로 14가구 3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조합원 자녀에 장학금

곡성 옥과농협

곡성옥과농협은 지난달 30일 농협 회의실에서 옥과와 오산·겸면 등 3개 면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옥과농협은 이날 조합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4년 김동휘(25)군 등 대학생 33명과 고등학교 2명 등 모두 35명에게 총 3천3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삼철 옥과농협조합장은 "농민조합원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도지사의 시·군 방문...

지방자치체 실시 이후 이같은 노력에 비해 얻은 성과는 극히 미미하다.

지난달 28일 장흥군을 방문한 박준영 전남지사는 주민과의 대화에 앞서 "예산관련 건의는 가급적 자제해 달라"며



김용기 <사회2부 장흥주재>

10%선에 불과하고 나머지 예산은 국비와 시·군비로 충당된다. 예산 지자체가 시·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을 따내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광역자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시·도에 조정기능만 남기고 여타 업무를 과감히 일선 시·군에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ykim@kwangju.co.kr

나주 '삼현육각' 전국공연 나선다

<피리2·대금·해금·장구·북>

기관·단체 희망시 무료연주

나주시가 전통문화유산인 삼현육각(三絃六角)의 전국 공연을 추진한다. 피리와 대금, 해금, 장구, 북 등으로 편성된 삼현육각은 조선시대 나주목사행렬과 향교석전대제 등 중요 행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일종의 관현악단이다.

한때 명맥이 끊겼다가 지난 2005년 다시 창단된 삼현육각 연주단은 지휘

자 김기종씨와 1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앞으로 타 지역 축제나 기관·사회단체 행사, 초·중·고 발표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펼치게 된다.

김기종 지휘자는 "전국 어느 곳이나 찾아가는 공연을 펼칠 나주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연주단을 나주시의 대표상품 가운데 하나로 부각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공연 장소나 규모 등을 감안



해 열בל과 군악, 거거기 등 삼현육각 연주(15분 소요)와 고구려의 훈 풍류전국악(30~40분 소요), 대금독주나 가야금병창 등 기악연주(3~5분 소요) 등으로 공연 상품을 개발했다. 삼현육각은 영산강문화축제와 시민의 날 행사, 드라마 '주몽' 제작 발표회 등 크고 작은 공연에서 시민과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사진) 공연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문화공보실 (061)330-8226로 연락하면 된다. /나주=정현기기자 chung@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 배출 13,14회 전국 최대 합격자 배출학원

이시훈(서울대)·김기현(고려대)·김민준(고려대)·김민준(고려대)·김민준(고려대)·김민준(고려대)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작강*

4월 2일 4주반(주말반) *직접 무료수강 6주간 6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 1위! 새총 행정고시학원 ☎361-8111

(주)태양상사 TEL 10821282-0101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여행 2박3일 78,000원

1박2일 59,000원 | 3박4일 78,000원 | 4박5일 97,000원

159,000원 | 169,000원

☎066-744-1109